

# 해남군, 벼 재배면적 감축...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

가루쌀, 조사료 재배 등 접수  
법인 참여시 지원사업 가점  
이행능가 비축미 300포 배정

해남군이 벼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감축에 나섰다.가루쌀, 조사료, 두류 재배 등으로 774ha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창심)는 지난 9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돕고 이웃의 정을 나누고자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2일 무안군 현경면에 따르면 봉사활동에는 부녀회장 40여 명이 참여하여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경면 마산리 농가를 찾아 마늘종 작일에 구슬땀을 흘렸다.

박창심 새마을부녀회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현경면장은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부녀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 발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무안군-무안경찰서

무안군은 지난 9일 군청 민원실에서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특이(악성)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하고 민원인 2차 피해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훈련은 비상상황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반(신고·상황대처·대피·구호반) 구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제지, 녹음·녹화 실시, 경찰서 112 연계 비상벨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출동 및 인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9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최근 특이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벼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참여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하거나 감축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

가는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를 최대 300포(40kg 기준) 추가 배정한다.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남군은 쌀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 전락작물(콩) 재배단지 2개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10개소, 가루쌀 생산단지 10개소 등에 선정돼 쌀 적정 생산을 위한 감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감축협약에 농업인들의 참여가 이어져 당초 목표인 1034ha에서 188% 초과 달성한 1954ha를 감축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비 32억원을 추가 배정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이 과다해 쌀값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선박설계 직업훈련 여성 모집  
영암여성일하기센터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6월 진행될 선박설계 인력양성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할 20~40세 취·창업 희망 경력 단절여성을 모집한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과정은 지역산업인 조선·선박 인력 양성을 위한 것. 6월24일 개강해 8월26일까지 총 44일 동안 평일 오전 9~오후1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선박설계 소프트웨어 기능, 실무 기술 등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이 목표다.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자부담 10만원을 납부하고, 교육 수료 시 5만원,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 출석률 80% 이상이면 교통비도 지원받는다. 과정 수료 후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연계 등 지원서비스를 해주고, 실업급여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 구직 활동 인정 혜택도 있다.

훈련 과정에 대한 안내와 접수는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061-463-9972~3)에서 한다.

센터는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구직상담, 인턴십 지원,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사무행정인력 양성과정을 개강해 운영하고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무안군 현경면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9일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 강진군, 사의재 주변 동문길 목재 특화거리 변신

어린이 놀이터 등 친환경 재생

강진군이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해 사의재 주변 거리에 어린이 목재 놀이터, 목재 조형물, 목재 포토존, 목재 울타리 등 목재를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고회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

고회 때 제시된 의견과 산림청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자료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유지 관리에 최적화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제시해 목재의 단점인 내구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목조건축협동조합 최규용 이사장은 목재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탈색이 생기면 경관 저하가 우려되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고, 파고라 상부에 햇빛과 비를 막아 줄 수 있게 차폐시설 설치 의견을 제시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색상 및 디자인을 세밀

하게 진행할 것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객 유치 목적 달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목재 문화 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강진의 특색있는 목재친화도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조형물 디자인을 마련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신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디자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 무안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무안군은 오는 31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가맹점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부정 수취(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및 불법

환전 행위(일명 '깡')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가맹점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현금 사용 차별대우 등이다.

부정유통 여부는 주민신고 사례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자료를 사전분석 후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무안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전액 환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 영암군, 청년문화수당 20만원 신청

영암군은 청년문화수당 20만원을 받을 청년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암군 청년문화수당 지원사업'에 따른 이번 모집은, 청년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등 지원을 위한 것.

청년문화수당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구입 등 문화복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5월10일 이전부터 영암군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29~39세 청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신청받는다.

청년문화수당은 매해 새로 신청해야 하고, 영암군은 신청 마감 후 지원 청년을

확정해 6월 중 영암사랑카드에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전남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참여자는 수당을 받을 수 없고,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차액인 7만원만 받을 수 있다.

청년문화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영암군 청년지원팀(061-470-2553)에서 한다.

영암=이병영 기자

수산 공익 직불금 접수  
완도군, 6월30일까지

완도군은 6월30일까지 수산 공익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수산 공익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등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어업인 △지난해 기준 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2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에게 80만원을 지급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지난해 농업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금 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직불금 및 육림업 직접 직불금을 받은 어업인은 지급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6월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7~8월 중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후 이행 점검을 통해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